

현안과 과제

- 식품물가의 국제비교 :
소비자물가가 생산자물가보다 빠르게 상승



< 요약 >

개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식품 관련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존재
-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를 OECD와 비교하고 시사점 도출
 -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의 식품 구매가격을 지수화
 - 농산품 생산자물가지수: 농가가 농산품을 출하한 후에 얻는 수취가격을 지수화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

■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 ('07→'10)

- 2007년 대비 2010년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용
- 한국: 20.1%로 OECD 29개국 중 3위
- OECD 주요 국가와 비교(OECD 평균 10.3%)
 - : 일본 2.5%, 프랑스 6.2%, 독일 7.2%, 영국 18.7%, 미국 8.2%

■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와 농산품 생산자물가 상승률 비교('07→'10)

-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 - 농산품 생산자물가 상승률' 이용
- 한국: 13.6%p로 OECD 29개국 중 4위
- OECD 주요 국가와 비교(OECD 평균 5.6%p)
 - : 일본 -2.0%p, 프랑스 5.3%p, 독일 10.8%p, 영국 -3.8%p, 미국 -2.5%p

시사점

- 첫째, 물가 안정책의 주된 수단은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보다 경쟁구조 촉진과 같은 '시장관리'에 두어야 한다.
- 둘째, 가격 불안정성이 높은 농산품에 대한 선제적 수급안정 노력으로 공급 측면 불확실성 증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 셋째, 농산품 유통구조상의 비효율성 개선과 소비자의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농산품 물가의 과도한 소비자 가격 이전을 막아야 한다.

1. 개 요

○ (연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계 생계비의 중요 항목인 식품 관련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체 소비자물가에 비해 가계의 식품과 관련이 있는 물가지수가 더 빠른 상승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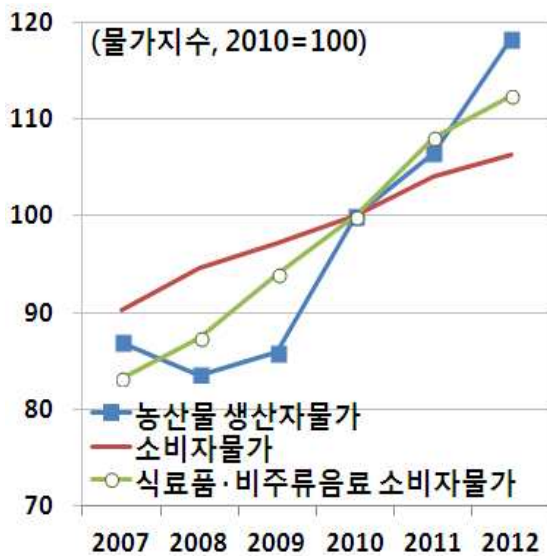
·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에 연평균 3%대를 기록한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연평균 6%대를 기록

· 한편, 농산물 생산자물가지수도 같은 기간 연평균 6%대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냄

- 농산물 생산자물가와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등의 식품 관련물가의 빠른 상승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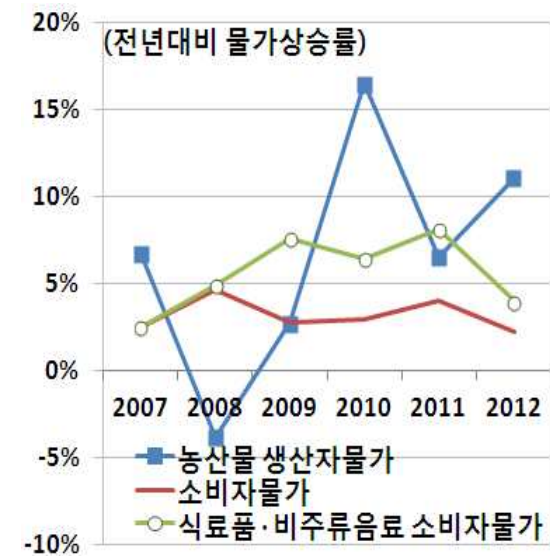
· 농산품 가격의 높은 상승은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체감물가를 상승시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농산물 생산자물가 및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지수>



자료: 한국은행.

<농산물 생산자물가 및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 (연구목적)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수준을 분석하여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고 시사점을 도출

- 이상기후의 상시화 등으로 향후 농산품의 수급 및 가격불안 현상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된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의 안정성이 염려
- OECD 국가들과의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안정성을 진단해보고 시사점을 도출

○ (연구방법)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가 발표한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상승률을 비교 분석¹⁾²⁾

-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자체의 상승률을 분석
 -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s, Food Index)는 소비자가 식료품·비주류음료 구매 시 지불하는 가격의 움직임을 지수화한 지표
 - FAO에서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및 비주류음료를 포괄하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s, Food Index)를 발표
-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원재료인 농산품 생산자물가³⁾의 상승률을 분석하여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와 비교
 - 농산품 생산자물가지수(Agriculture Producer Price Index)는 농가가 농산품을 시장에 출하하고 얻는 수취가격의 움직임을 지수화한 지표
 - FAO에서는 농축산물 개별품목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종합한 농산품 생산자물가지수(Agriculture Producer Price Index)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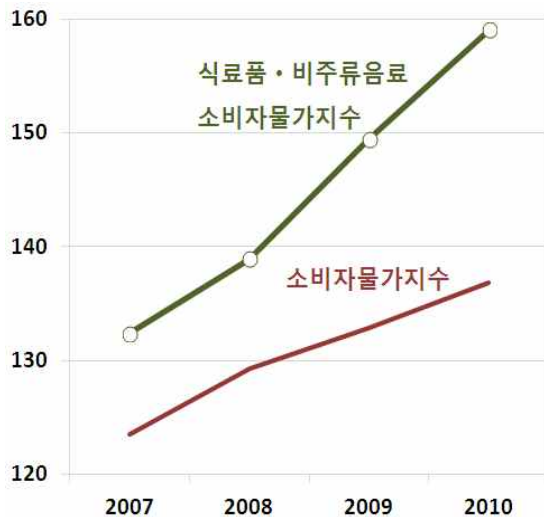
- 1)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 비교를 위해 FAO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 현재 FAO의 농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2010년 자료,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는 2012년 자료까지 발표되어 본 보고서의 분석은 2007~10년까지의 물가지수에 한정.
- 3)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에 대응하는 생산자물가로 FAO의 농산품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함. 이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 구성항목에서 수산물, 가공식품, 비주류음료 부문에서 차이가 있으나 문제되는 품목의 가중치가 농축산물보다 낮고 두 물가지수의 상관관계수가 0.95(한국) 수준으로 매우 높아 두 지수를 비교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2.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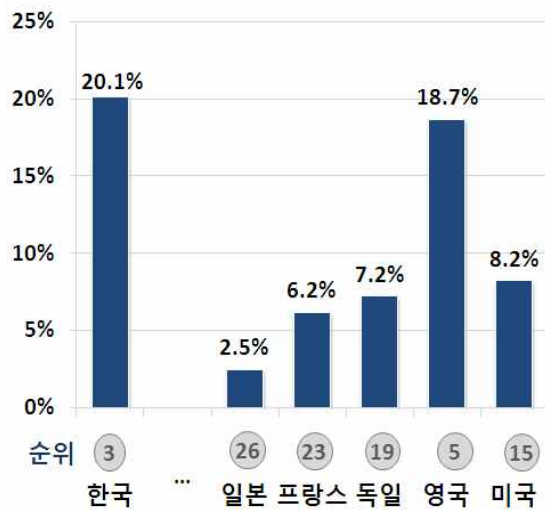
○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 한국의 2007~10년 기간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로 OECD 29개국 중 3위

-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다 빠르게 상승
 -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는 2007년 대비 2010년 20.1% 상승
 - 이는 동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0.7%를 상회하는 상승률
-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 29개국 중 3위
 - OECD 29개국을 대상으로 2007년 대비 2010년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20.1%)은 29개국 중 3위
 - 주요 선진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본 2.5%, 프랑스 6.2%, 독일 7.2%, 영국 18.7%, 미국 8.2%로 한국보다 낮음
 - 한편,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 -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9.4%p로 영국의 10.5%p에 이어 2위를 기록4)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국제 비교('07→'10)>



자료: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분석.

주: 물가 상승률은 2007년 대비 2010년의 물가지수 상승률로 측정(2000=100 기준).

4)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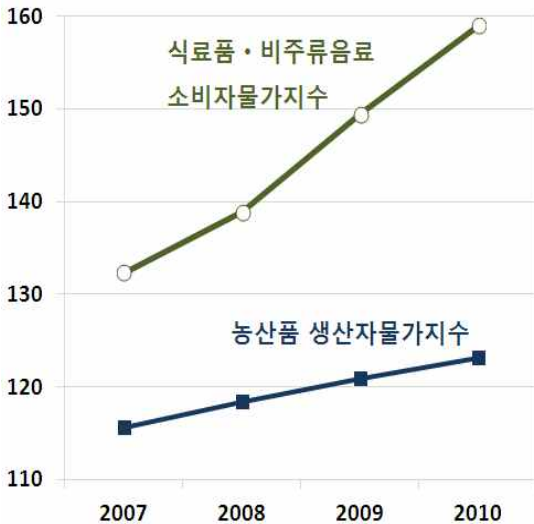
○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및 농산품 생산자물가 상승률 비교) 한국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가 농산품 생산자물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

-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는 농산품 생산자물가보다 빠르게 상승
 -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가 2007년 대비 2010년 20.1% 상승하는 동안 농산품의 생산자물가는 6.5% 상승
 - 즉, 한국은 분석 기간 동안 농산품 생산자물가보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가 13.6%p 더 빠른 속도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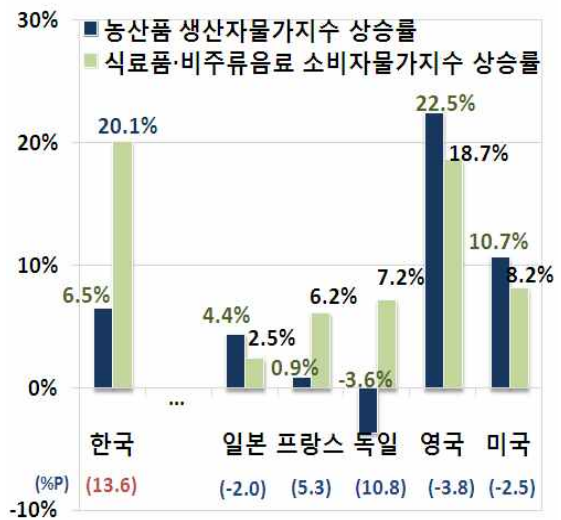
- 한국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농산품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간 격차가 13.6%p로 OECD 29개국 중 4위

- OECD를 대상으로 2007년 대비 2010년의 물가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미국, 일본 등 7개국은 농산품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한국 등 22개국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
-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 상승률 - 농산품 생산자물가 상승률’의 OECD 29개국의 순위로는 한국은 4위를 기록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와 농산품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농산품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국제 비교('07→'10)>



자료: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분석.

- 주: 1) 물가 상승률은 2007년 대비 2010년의 물가지수 증가율로 측정(2000=100 기준)
- 2) 국가 하단 괄호안의 숫자는 두 물가지수 상승률의 격차(%p)를 의미.

3. 시사점

○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식품 관련 물가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

-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식품 관련 소비자물가는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물가가 가계의 지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 또한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식품 관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원재료인 농산품 생산자물가 상승률보다 높는데, 이는 농산품 물가 상승 압력이 여과 없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첫째, 물가 안정책의 주된 수단은 가격통제 중심의 '물가관리'보다 경쟁구조 촉진과 같은 '시장관리'에 두어야 한다.

- 물가단속과 같은 가격 통제 위주의 물가 관리 정책은 가격 인상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어 결국 이후의 물가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존재
- 통계 숫자 상의 물가 지수 관리보다 시장 경쟁 촉진, 담합 행위 규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물가 결정시스템을 조성

둘째, 가격 불안정성이 높은 농산품에 대한 선제적 수급안정 노력으로 공급 측면 불확실성 증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 이상 기후 현상의 증가, 에너지 가격 변동 등 공급 부문에서의 불확실성 증가로 수급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

- 농업관측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상 변화 등 불확실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관측과 수급정책 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
- 상시비축제 확대 시행, 비축기지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비축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시장 자율적인 수급 및 가격 안정체계를 구축
- 농산품 선물 시장 거래 활성화,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등 농산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

셋째, 농산품 유통구조상의 비효율성 개선과 소비자의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농산품 물가의 과도한 소비자 가격 이전을 막아야 한다.

- 산지에서 수확 및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상품의 대형화·규격화를 도모하는 등 산지규모화·조직화를 통해 영세한 생산 규모를 보완하여 유통 효율성 증가
- 신속·정확한 유통정보 제공을 통해 생산자와 유통업자, 소비자 사이에 나타나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 감시 기능을 강화 **HRI**

백다미 연구원 (dm100@hri.co.kr, 2072-6239)

< 참고 문헌 >

- 관계부처 합동,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2013.05.27.
- 김주수 외,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방향 정립”, 강원농수산포럼. 2010.01.12.
-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 2011.
-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연도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2003~2011.
- 박동진 외, “안동지역 농산물 유통구조 발전 방안”, 한국은행, 2012.09.11.
- 양승룡 외, “농산물 유통의 진짜 문제와 진짜 해법”, GS&J Institute, 2013.
- 유춘권,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농협경제연구소, 2011.
- 정원호 외, “농어업 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정포커스 제 57호, 2013.5.20.
- 최경환,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정포커스 제 12호, 2012.3.20.
- 최경환 외, “농작물 재해보험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10.
- 최병옥 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정포커스 제30호, 2012.10.5.
- 한국농업경제학회, 『농업경제학』, 율곡출판사, 201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유통정책의 문제와 선진화 과제”, 2007.1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농정이슈 심층토론회, 2012.09.2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리스크 관리정책의 문제와 과제”, 2007.12.
- 현대경제연구원, “저소득층 여름철 체감물가 높다”, 현안과 과제 13-28, 2013.07.02
- FAO, “FAO Statistical Yearbook 2013”. 2013.
- OECD/FAO,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2-2021", 2012.

【별첨】 2007~10년 물가지수 상승률

	농산품 생산자 물가지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자 물가지수		A - B	
	상승률(A)	순위	상승률(B)	순위	(%p)	순위
호주	23.1%	3	10.2%	11	-12.9%	29
오스트리아	2.4%	13	7.1%	20	4.7%	17
벨기에	-2.1%	21	8.6%	14	10.6%	10
캐나다	3.6%	12	10.1%	12	6.5%	15
체코	-13.1%	29	-0.6%	28	12.5%	7
덴마크	-1.5%	19	7.9%	16	9.4%	13
에스토니아	0.0%	16	12.9%	9	12.9%	5
핀란드	-3.4%	23	6.8%	21	10.2%	11
프랑스	0.9%	15	6.2%	23	5.3%	16
독일	-3.6%	25	7.2%	19	10.8%	9
그리스	3.8%	11	7.5%	18	3.7%	19
헝가리	-1.1%	18	18.7%	4	19.8%	1
아일랜드	-2.6%	22	-1.9%	29	0.7%	22
이스라엘	18.6%	6	16.0%	7	-2.6%	25
일본	4.4%	10	2.5%	26	-2.0%	23
룩셈부르크	-5.0%	26	7.8%	17	12.8%	6
멕시코	20.8%	5	22.0%	2	1.2%	21
네덜란드	-3.4%	24	6.7%	22	10.1%	12
뉴질랜드	27.9%	2	16.3%	6	-11.6%	28
노르웨이	13.9%	7	8.8%	13	-5.1%	27
폴란드	1.1%	14	13.1%	8	12.0%	8
한국	6.5%	9	20.1%	3	13.6%	4
슬로바키아	-12.1%	28	5.9%	24	17.9%	2
슬로베니아	-1.7%	20	11.9%	10	13.7%	3
스페인	-0.7%	17	3.9%	25	4.6%	18
스위스	-6.5%	27	1.7%	27	8.2%	14
터키	33.4%	1	34.7%	1	1.3%	20
영국	22.5%	4	18.7%	5	-3.8%	26
미국	10.7%	8	8.2%	15	-2.5%	24

자료 :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분석.

주: 1) CPI: Consumer Prices, Food Indices 기준

PPI: Agriculture Producer Price Indices 기준

2) OECD 29개국 대상으로 2007년 대비 2010년의 물가지수 상승률을 분석.